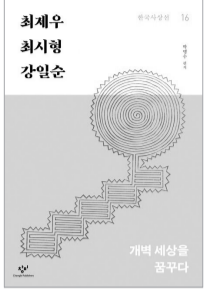


# 문명전환의 시대, 한국 사상가를 만난다

## 창비 한국사상선 16

최제우·최시형·강일순  
박맹수 편저



“...문명적 대전환에 기여할 사상, 그런 의미에서 단순히 개혁적이거나 보편적이거나 할 사상이 의미 있는 보편이 되고 대항담론에 그치지 않는 대안담론으로서 한국사상이 갖는 잠재성을 세계의 다른 구성원들과 공유하는 계기가 된다면 더없는 보람일 것이다.”

창간 60주년을 앞두고 도서출판 창비가 총 30권으로 구성된 '한국사상선' 기획을 펴낸다. '문명전환을 이룰 대안사상의 모색'이라는 과제를 중심으로 조선시대부터 20세기 후반에 이르는 시기의 주요 사상가와 군주, 문인, 정치인, 종교인, 여성 등 59명을 포괄한다. 각 권마다 해당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을 편저자로 위촉했다. 우선 정도전(1권)과 세종·정조(2권), 김시습·서경덕(3권), 이항(5권), 최제우·최시형·강일순(16권), 박종빈·송규(20권) 등 1차분 10권(1-5권, 16-20권)을 선보였다.

창비 한국사상선 간행위원회는 '간행의 말'에서 "전환"이라는 강력하게 실천적인 과제는 우리 모두에게 다른 삶의 전망과 지침이 필요하며 전망과 지침으로 살아 작동할 사상이 절실함을 뜻한다"며 "그런 사상을 향한 다급하고 간절한 요청에 공명하려는 기획으로서, 창비 한국사상선은 한국사상이라는 분야를 요령 있게 소개하거나 새롭게 정리하는 평시적 작업을 넘어 어떤 비상한 대책이기를 열망하며 구성되었다"고 밝힌다. 또한 간행위는 핵심저자를 '원문의 의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되도록 오늘날의 언어에 가깝게 풀어' 쓰고, 편저자의 서문을 통해 해당 사상가의 사유를 개관하는 한편

새로운 관점을 보며 독자들과의 시야를 넓힐 수 있도록 배려했다. 사상가의 일대기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작성한 연보를 덧붙였다.

간행위는 창비 한국사상선이 '가까이 두고 자주 들춰보는 공통 교양서'가 되기를 바란다. 16권과 20권에 '한반도가 낳은 개혁사상가'를 배치했다. '개혁세상을 꿈꾸다'라는 부제를 붙인 사상선 16권은 조선 후기 동학(東學) 창시자인 최제우와 2대 교주 최시형, 증산교(甞山敎) 창시자인 강일순 등 개혁종교 사상가를 중심으로 했다. 2023년 6개월 동안 저술 작업에 심혈을 기울였던 한국근대역사 및 사상연구자인 박맹수 원광대 명예교수는 "동학쟁이 박맹수의 40년간의 땀과 눈물로 쓴 책"이라며 "갑오년 동학농민혁명 때 보국안민을 위해, 못생명을 살리기 위해 희생당하신 30만 동학군 영령께 바친다"고 말한다.

편저자 박 교수는 '현대의 개혁을 위한 초석'이라는 제목의 서문을 통해 수운(水雲) 최제우·해월(海月) 최시형·증산(甞山) 강일순의 일대기와 개혁사상에 대해 독자들에게 들려준다. 그리고 수운이 지은 한글가사 '용담유사(龍潭遺詞)', 해월의 전기인 '해월선생 문집', 증산의 일대기와 행적을 정리한 '대순전경(大巡典經)' 등 개혁종교 사상가의 핵심 저작을 현대 한글로



지난 16일 '창비 한국사상선' 출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출간작품을 소개하는 백낙청 간행위원장(서울대 명예교수).

번역하고 어려운 용어를 일일이 쉽게 풀이했다. 특히 부록으로 1894년 음력 3월 '늑두장군' 전봉준과 농민군 지도부가 봉기하며 발표한 '무장 포고문'을 비롯해 삼문조서인 '전봉준 공초(供奉)', 의암(義菴) 손병희의 '삼전론(三戰論)'을 수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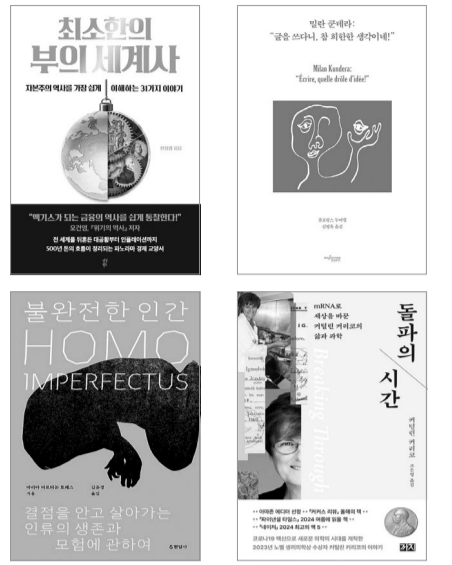
창비 한국사상선 기획은 문명전환의 시대에 절박하게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실존적 길을 모색하는 현대 독자들에게 해안(慰安)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제목만 알고 있는 정도에 그치는 사상이 핵심 저작을 현대 한글로 쉽게 풀이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새로운 사유와 실천의 나침반을 제시한다. 한편 창비는 2026년 완간을 목표로 조광조·조식(6권)과 최한기(15권), 김구·여운형(21권), 김대중(30권) 등 나머지 20권을 2, 3차분으로 출간할 예정이다. <창비·각 2만3000원> /송기동 기자 song@kwangju.co.kr

## 새로운 책

▲최소한의 부의 세계사=화폐 개념을 중심으로 경제사를 망라한다. 끊임없는 인플레이션과 주식, 코인 문제 등은 경제적 부를 이루는 어려움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그 속에서 누군가는 경제 위기를 겪고, 혹자는 부의 '추월차선'을 거머쥔다. 현대 사회에서 재산을 증식시키기 위해서는 대공황의 원인, 스태그플레이션의 시작점 등 과거 경제사를 조망할 필요가 있다. 총 31개 순간을 통해 한국경제의 현주소를 분석한다. <다산북스·1만8800원>

▲밀란 쿤데라: "글을 쓰다니 참 희한한 생각이네"=존재의 가치와 실존에 대해 이야기한 밀란 쿤데라의 삶과 소설의 길을 되짚어본다. 밀란 쿤데라가 타계하기 한 달 전 프랑스에서 출간된 소설은, 삶을 매조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쿤데라가 들려준 이야기들을 담았다. 저자는 쿤데라 부부의 집에 방문해 "글을 쓰는 일"에 대해 생각을 나눈다. 쿤데라의 작품 속에 형성화된 유럽의 지적 쇠퇴와 등을 논하며 사유할 거리를 던진다. <뮤지트리·2만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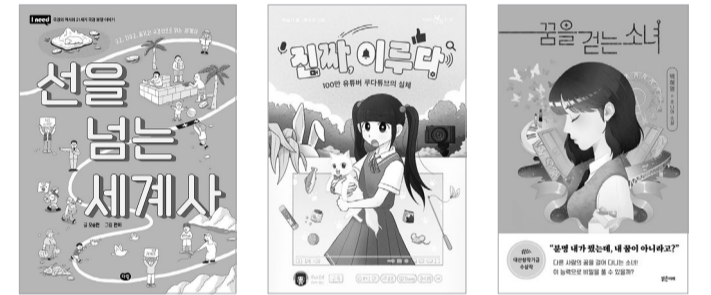
▲불완전한 인간=완전한 인간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불완전한'이란 호모사피엔스를 매력적으로 만든다. 의사였다가 법의학으로 진로를 바꾼 저자는 자연선택 등 과학적 현상들이 인류의 실존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노화, 암, 불완전한 성장기, 죽음에 대한 예민함과 공포 등 인류는 다른 포유류에 비해 예민한 부분을 많



이 갖고 있다. 이러한 모습들이 인류의 생존 투쟁임을 스토리텔링을 활용해 들려준다. <현암사·1만9000원>

▲돌파의 시간=mRNA 백신을 통해 세상에 섰던 영향력을 가져온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의 회고록이 나왔다. 지구촌에 드리웠던 '코로나19'의 공포는 순식간에 전 인류를 절망으로 잠식했지만, 빠른 백신 개발로 인해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다. 이 같은 백신 개발의 성패와 빠른 진척도의 기반에는 생물학자들의 희생이 있었다. 학계에서 '아웃사이더'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팬데믹 종식에 기여한 mRNA 백신 기술을 개발한 커털린 커리코의 삶을 담았다. <까치·1만8000원>

## 어린이·청소년 책



▲선을 넘는 세계사=세계에서 제일 긴 국경선을 가진 나라는 어디일까? 100만 명이 넘는 아일랜드인은 왜 미국으로 떠났을까? 세계에 존재하는 다양한 '국경선'에 착안해 흥미로운 세계사를 들여다 본다. 유럽에 존재하지 않는 국경 검문소, 이스라엘이 가져 지구에 분리 장벽을 세운 이유 등 흥미로운 세계사 이슈를 알려준다. <다림·1만2500원>

▲진짜, 이루다=주인공 '루다'는 99.8만 구독자를 자랑하는 유튜브 채널 '루다튜브'의 주인공이다. 열두 살 '이루다'는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이며 인터넷 세상에서 나름의 만족감을 느낀다. 그러나 온라

인 범죄, 동물 학대 등 관심을 끌기 위한 방법들이 인터넷 세상에 범람하고 있다. 유튜브 루다에게 숨겨져 있는 비밀을 파헤치며 인터넷 윤리를 알려준다. <이지북·1만5000원>

▲꿈을 걷는 소녀=사춘기 소녀가 다른 사람의 꿈을 거닐 수 있는 능력을 통해 엄마의 오래된 상처를 밝혀 낸다. 30년 전에 있었던 사회적 참사를 청소년들의 감성으로 바라보며 상처 입은 이들의 마음을 치유한다. 주인공 새별이는 점차 '꿈 능력'이 각성하면서 오래된 '엄마 꿈'에 다가가고, 단서들을 모아 가족애와 우정을 회복한다. <밝은미래·1만6000원>

# 느끼는 법을 잊은 당신에게 전하는 감수성 인문학

## 감수성 수업

정여울 지음



그리니치 천문대, 사랑하는 여동생들, 데미안과 싱클레어, 라퐁젤, 기념일.

문학, 미술, 심리학 등 다양한 글쓰기로 사랑을 받고 있는 정여울 작가가 신작 '감수성 수업-느끼는 법을 잊은 당신에게'에서 풀어 놓은 키워드들이다. 예민한 감수성을 갖고 있었지만 유연하고 풍요롭지는 못했던 저자가 찬란한 자신만의 '개성화'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해 준 수많은 깨달음의 컬렉션이기도 하다.

저자는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은 어떤 고통에도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다고 말한다. 아무리 충격적 상황에서도 '그동안 내가 읽고 배우고 경험한 사건들' 속에서 비슷한 사례를 찾아내고, 그 모든 순간의 깨달음을 지혜롭게 종합해 영민하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에게 감수성이란, "느끼고 깨닫는 능력 뿐 아니라 살아가고 이겨내는 능력을 키우는 힘"이기도 하다.

책은 '개념과 낱말', '장소와 사물', '인물과 캐릭터' 3부로 나눠 모두 43편의 감성 수업을 통해 자신만의 '컬렉션'을 만들어 나갈 것을 권한다.

'인물과 캐릭터'에서는 자신의 글쓰기 인생의 뮤즈였던 수전 손탁을 비롯해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등 문학작품 속 주인공들과 나이 많은 친구이자 멘토였던 문학평론가 고(故) 황광수까지 삶이 힘들 때 떠올리며 힘을 얻었던 '인간'에 대해 이야기한다.

저자의 시선은 '위대한 개츠비'의 주인공 개츠비가 아니라, 그의 친구 '닉'에게로 향한다. 그는 타인의 삶을 너무 쉽게 판단하고 단죄하는 시대에 '누구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대신, 그는 신중하게 타인의 장점을 발견하고 끝내 타인을 존중하고 공감하며 이해하는 길로 나아간다. 저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 타인 때문에 괴로울 때 '닉'의 삶을 끄집어 내는 이유다.

또 사랑받기를 포기한 적이 있던 어린시절을 기억하

며 클레어 키친의 '말겨진 소녀'를 통해 위안을 받는다. 마음 속에서 오랫동안 보살핌을 받지 못했던 '내 안의 작은 소녀'를 꼭 안아주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더불어 우리 곁에 있는, 홀로 은둔하며 마음을 닫은 이들이 들을 잊지 말 것을 당부한다.

'개념과 낱말'에서는 책임, 침묵, 배려, 트라우마, 마음챙김 등 자주 사용하지만 실상은 제대로 생각해 보지 않은 단어들에 대한 다른 사유를 제안한다. 욕망과 정체성을 상징하는 구두, 삶의 새로운 국면으로 떠나고 싶을 때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기차, 나를 나답게 만드는 추억이 깃들여 있는 액자 등 사물에 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다룬다.

"타고난 감수성 때문이 아니라 지금까지 매일 훈련해 온 감수성 덕분에 지금껏 행복한 글쟁이로 살아오고 있다"는 저자는 "내 안에서는 매일 '아무도 짜주지 않은 아름다움의 시간표'가 알차게 실현되고 있다"고 말한다. "나만의 감수성을 키우는 시간표"를 만드는 것은 이제 독자의 몫이다. <민음사·1만70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수 목 장



삶의 마지막, 한 그루 나무가 될 당신을 기억합니다.